

中, 도시화를 알면 시장이 보인다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도시화(城鎮化)와 중국경제발전 / 5

5	1. 경제성장 패러다임
7	2. 중국의 도시화
7	가. 도시가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
9	나. 도시화가 경제발전 추동력
10	3. 도시화의 추진 방식
11	가. 新도시 건설
11	나. 기존도시의 확장
12	다. 도시간 경제벨트화
12	라. 산업클러스터확대를 통한 도시화
12	마. 현성(縣城)과 중소도시의 확대

II. 도시화와 시장기회 / 13

13	1. 시장기회
14	2. 소비
15	3. 프로젝트(도시인프라)

III. 진출방안 / 19

19	1. 개황
20	2. 진출방안
20	가. 소비시장 진출
23	나. 프로젝트 시장 진출

요 약

■ 경제성장 정책 기본 틀로 등장한 도시화(城鎮化)

-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1/4분기 6.1%라는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 2/4분기 7.9%, 3/4분기 8.9%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GDP 성장율은 8-9%로 전망됨.
- 중국경제의 주요 성장 축이었던 대외무역의 대폭 감소(1-11월 17.5% 감소)상황에서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고정자산 투자와 소비 부문임.
- 중국정부는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를 열고 2010년도 경제정책추진 방향으로 1)적극적인 재정정책, 2)적절한 통화완화정책, 3)내수확대 정책(소비확대, 도시화, 산업구조개선)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내수시장 진작정책이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성장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으며, 내수확대의 중심개념에 도시화(城鎮化)가 주요 정책추진 방향이 되었음.

■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도시화

- 도시가 경제 발전 견인: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도시가 농촌의 6배, 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의 경우 2배, 가처분소득의 경우 3배 이상으로 도시와 농촌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3〉 중국의 도시와 농촌

		2008			2009.1-9		
		도시(A)	농촌(B)	A/B	도시(A)	농촌(B)	A/B
인구	만명	60,667	72,135	0.8			
고정자산투자	억위안	148,167	24,124	6.1	133,177	21,880	6.1
소비품소매판매총액	억위안	73,735	34,753	2.1	61,013	28,663	2.1
가처분소득	위안	15,781	4,761	3.3	14,213	4,307	3.3

자료원 : 中國統計摘要2008, 중국국가통계국'09.10.22 발표자료 등

○ 중국이 도시화를 진행하는 방식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新도시의 건설 : 경제특구, 신구, 첨단신기술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 기존 도시의 지속 확장 : 도시외곽 및 농촌지역 부분의 도시화
- 도시간 경제통합(벨트화)을 통한 규모화
-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도시의 내부역량 확대
- 현성(縣城)의 확대

■ 무한 시장기회로 다가오는 도시화

○ 중국의 도시화를 통한 경제성장 추진은 1) 중대 도시들의 소비시장 확대, 2)프로젝트 시장(도로, 통신망, 지하철 등 인프라 구축과 학교, 아파트, 상가 건설 등 건축분야, 생활오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등 에너지·환경 분야)의 진입기회 확대를 가져오고 있음.

(소비) 2008년 일인당 GDP \$3,268로 '소비점화'시대에 진입하였음. 상하이, 광저우 등은 이미 1 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으며, 2,3선 도시들 역시 4천 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 중고급 소비재 시장이 활짝 열렸음. 도시화 정책은 소비시장 확대 추세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음.

(프로젝트) 생태도시(Eco-city), U-city등 신규 개념도시 건설, 도시확대에 따른 오폐수처리장 건설, 쓰레기 처리장(소각발전, 자원화, 에너지화) 건설, 교통시스템 구축(ITS,지하철 등) 등 프로젝트 시장 확대

▷ **U-city** : 도시화와 관련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임.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에서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베이징 U-city : CBD상권, 금융가, 중관촌, 왕징 경제기술개발구, 이좡(亦庄) 등 100sq km에서 추진되고 있음

▷ **Eco-city (Green-city)** : 그린시티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텐진의 빈하이 신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요 도시들이 에코시티의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정비 하거나 새로운 도시지역을 형성해 가고 있음.

▷ **환경·교통 프로젝트** : 도시가 팽창하면서 상하수도처리, 쓰레기 처리(소각발전, 자원화, 에너지화)전력공급, 교통관리시스템 등 많은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도심과 신규 부도심간 고속화도로, 도시 순환도로, 전력시설, 도시와 도시간 고속도로, 통신망, 환경에너지 설비, 도로교통 통제시스템(ITS), 통신설비 등의 신규 시장이 생겨나고 있음.

■ 도시별 세분화 마케팅과 프로젝트 개발로 시장공략

○ 중국시장에 대한 심층적이며 새로운 방향 모색

- 시장접근의 개념 전환 : 포괄적 접근 ⇒ 도시별 미시적 접근
- 각 도시별 도시화 현황 조사 및 마케팅
- 융합 마케팅 구사 : 물류-유통-금융-서비스가 융합된 마케팅 구사
- 정부조달 및 프로젝트 시장 개발

○ 소비시장

- 전시회 등 기본적인 시장개척 수단 활용, 타케팅 분야 선정 집중
-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입(공동물류센터와 연계)
- 글로벌기업 및 중국 대기업 아웃소싱 시장 진입
- 2,3선 도시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온라인 유통채널, 여성소비, 메이저 경쟁자를 우회하는 틈새시장 공략, 한류활용, 할인마케팅)

○ 프로젝트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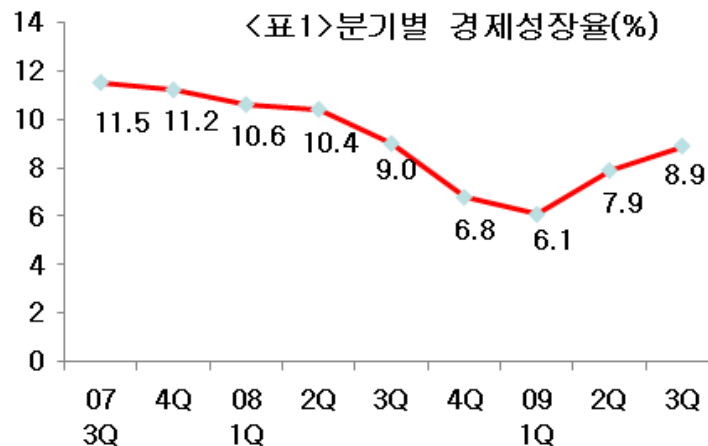
- 환경관리+ 에너지창출 효과 가능 프로젝트 발굴 및 시행
 - 폐기물재활용, 환경·생태도시, 하수처리장 공동개발, 쓰레기소각발전, 환경에너지 검측 관리시스템 등 환경관리(오염방지, 오염처리, 오염물발생 감소) + 에너지화(에너지 재생)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프로젝트 공동 조사 발굴
 - 지역별 폐자원 에너지화 가능 프로젝트 정보 교환 및 시범 프로젝트 시행 (BOT 방식, TURN KEY 방식 프로젝트)
 - 양국간 프로젝트 수행 협력 가능업체(설계, 기술, 공정, 자금 등 분야) 정보 교환 및 협력 상담(주선 및 지원)

- 폐자원 에너지화 가능항목 공동개발
 - 사용종료 매립지 재개발, 오폐수처리장 슬러지 등 폐기물 자원 에너지화 가능성 조사
 - 폐기물 분리 및 가연성 쓰레기 에너지 자원화 공동 협력
- 한중 환경-에너지화 정기포럼 상호 개최
 - 상호교환 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속
 - 환경관리+재생에너지화 모범 사례(경험) 소개 및 전파
 - 관련 기술 개발 현황 정보 상호 교환 (DB화)
- 관련 기술 인증 상호 인정 추진
- 관련 라벨 인증 상호 인정 추진
- 관련 전시회 참가 및 양국 업체 간 상담 지원

I. 도시화(城鎮化)와 중국경제발전

1. 경제성장 패러다임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1/4분기 6.1%라는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 2/4분기 7.9%, 3/4분기 8.9% 성장을 기록하였음.¹⁾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의 과감한 내수부양책, 농촌소비진작책 등을 통한 재정과 금융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어, 금년도 GDP 성장율이 8%는 물론 9%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²⁾



중국경제의 주요 성장 축이었던 대외무역이 대폭 감소(1~11월 17.5%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고정자산 투자와 소비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음. 공공프로젝트를 통한 SOC 건설, 신규 플랜트 건설, 건축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1-9월간 33.4%나 증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4%포인트 높은 증가를 보여주면서 경제를 확실하게 끌어 주었음.³⁾ 소비역시 가전하향⁴⁾, 자동차하향⁵⁾,

- 1) 중국정부가 2010년 열(자산거품방지)을 예방하는 '출구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12월초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속적인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기조로 방침을 정하였음.
- 2) 물론 그 속내를 보면 신용대출 과다, 중복투자 및 건설, 물가상승 우려, 기업이윤율 감소, 높은 실업률 등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경제가 투자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해 감소하는 대외무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2010년에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3) 고정자산투자는 국민소득 GDP구성요소($Y=C+I+G+(X-M)$) 중 I(자본형성투자)에 포함됨.
- 4) 가전하향(家電下鄉) : 2009.2.1일부터 4년간 농민이 일정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액 13% 보조
- 5) 자동차하향(汽車下鄉) : 1300cc이하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자동차 구매세 인하⁶⁾, 부동산 거래세 인하⁷⁾, 금융대출 확대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2008년 보다는 낮지만 두자리수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었음.⁸⁾

이러한 경제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⁹⁾를 열고 2010년도 경제정책추진 방향으로 1)적극적인 재정정책, 2)적절한 통화완화정책, 3)내수확대 정책(소비확대, 도시화, 산업구조개선)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내수시장 진작 정책이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고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이며, 내수확대의 중심개념에 도시화(城鎮化)가 주요 정책추진 방향의 하나가 되었음.

중국정부는 일찍이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个五年规划, 2006~2010년)에서 내수시장 확대 특히, 소비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정책을 표명한 바 있음. 중국의 경제성장은 자본형성(고정자산투자)과 수출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최종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하로 60-70% 수준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었음(<표2>참조).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려면 고정자산투자나 대외무역 부분¹⁰⁾ 보다는, 소비확대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인식하에 중국정부는 내수(소비)확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음.

중국정부가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대내지향적(내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경제성장 축을 변환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기업이 주목하여야 할 것은 중국정부가 경제성장 추진의 주요 방향으로 '내수확대'를, 그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도시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따라 도시화에 따른 무한한 시장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임.

6) 자동차구매세인하 : 1600cc이하 차량에 대해 구매세 5%만 징수

7) 부동산거래관련 세액감면 : 90sqm이하 주택 구매시 계약세 1%로 인하, 인화세,토지증치세 면세. 구매 2년 이상 주택 거래세(영업세) 감세 조치

8) 1~11월간 소비품소매판매총액은 112,73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를 보였음.

9)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 차년도 중국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 공산당 중앙 상무위 전원, 국무원 총리 및 국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 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 각 성(省) 지도자 등 참석. 보통 12월초(12.7일경)개최. 금년에는 12.5~7일에 개최되었음.

10)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08년 59.2%로 경제규모를 고려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임. 미국, 일본 등은 30% 이내임. :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 → (14,286억\$+11,331억\$)/43,292억\$.

〈표2〉 중국의 GDP 구조

GDP = 최종소비 (C + G) + 자본형성 (I) + 순수출 (Exp - Imp)			
(08,경상가격.억元)306,860 = 149,113 (48.6%) + 133,612 (43.5%) + 24,134 (7.9%)			
2008 공헌율(%)	45.7	45.1	9.2
2007	40.6	39.7	19.7
2008 성장기여(%p)	4.1	4.1	0.8
2007	4.1	5.1	2.6

자료원 : 중국통계년감, 중국통계적요2009

2. 중국의 도시화

,

부진한 대외무역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것은 철도, 도로, 공항, 오폐수처리장 등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더불어 각종 소비촉진 조치를 통한 농촌의 소비제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의 주요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중국경제에서 농촌경제의 중요성이 그 만큼 커졌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여전히 도시경제임.

중국정부 공식자료를 중심으로 만든 <표3>에서 보면 도시 인구(도시등록 인구기준)는 농촌인구보다 훨씬 적은 상황인데,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도시가 농촌의 6배, 소비품소매판매총액의 경우 2배, 가처분소득의 경우 3배 이상으로 도시와 농촌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말하자면, 최근 중국정부가 농촌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의 핵심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소비 역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 마디로 중국경제의 중심은 ‘도시’에 있으며, 중국의 도시경제의 발전향방이 중국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것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표3〉 중국의 도시와 농촌

		2008			2009.1-9		
		도시(A)	농촌(B)	A/B	도시(A)	농촌(B)	A/B
인구	만명	60,667	72,135	0.8			
고정자산투자	억위안	148,167	24,124	6.1	133,177	21,880	6.1
소비품소매판매총액	억위안	73,735	34,753	2.1	61,013	28,663	2.1
가처분소득	위안	15,781	4,761	3.3	14,213	4,307	3.3

자료원 : 中國統計摘要2008, 중국국가통계국'09.7.16 발표자료 등

주1) 중국정부발표자료는 고정자산투자는 도시(城鎮)과 농촌(農村), 소비품소매판매총액은 도시(城市)와 현 및 현급이하(縣及縣以下)로 구분되어 있음.

주2) 가처분 소득은 중국정부 통계방식에 따라 도시(城鎮)지역은 일인당가처분소득(人均可支配收入)을, 농촌(農村)지역은 일인당 현금소득(人均現金收入)으로 작성.

〈표4〉 중국의 도시와 농촌지역 고정자산투자 추세

, //

□ 중국도시 : 거의 모든 도시가 ‘도시와 농촌의 복합체’

중국의 도시는 행정적으로 직할시(直轄市)¹²⁾, 성회(省會)¹³⁾,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¹⁴⁾, 부성급성시(副省級城市)¹⁵⁾, 지급시(地級市)¹⁶⁾, 현급시(縣級市)¹⁷⁾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그 규모와 등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시가 상당한 면적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합하여진 소위 도농복합도시(우리의 광역시 개념과 비슷)라는 점이 공통적임.

예를 들면 한국의 80% 면적인 8.3만km² 면적의 충칭시(重慶)는 '08년 공식 통계상 인구 2,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¹⁸⁾. 그러나 도심지역에는 450-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나머지 약 2,000만 명은 농촌에 가까운 지방도시 내지 농촌에 살고 있는 상황임. 대도시 뿐만아니라 인구 100만 명 정도 되는 지방 도시들의 경우도 대부분 30~40%만 도심지역에 있고 나머지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작은 도시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임.

중국정부는 농촌경제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과는 날이 갈수록 도농(都農)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¹⁹⁾ <표3>, <표4>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지역에 투자와 소비가 집중되고 있어, 도농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며, 향후 중국내수시장의 중점은 도시 지역이 될 것임.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그 정책 수단으로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인 성장전략으로 부상하게 되었음.

- 11) 도시화 : 2008년말 현재 중국 도시화율(일반적으로 전체인구에서 도시인구(城鎮人口)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고 있음)은 45.7%, 118개도시가 인구 백만명 이상
- 12)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4대 직할시가 있으며, 성(省), 자치구(自治區)와 동격임.
- 13) 성회(省會) : 각 성(省)의 중심도시. 성정부 소재도시.
- 14)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 재정수지관리에 있어 성정부의 관할을 받지않고 중앙정부의 관할을 받는 도시. 선전(深圳), Ningbo(寧波),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샤먼(廈門)
- 15) 부성급성시(副省級城市) : 부분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시와 행정적으로 비슷한 격이나 서기, 시장의 급수가 부성장급 내지 차관급임.
- 16) 지급시(地級市) : 성정부 관할을 받는 도시
- 17) 현급시(縣級市) : 지급시 산하의 지방도시
- 18) 충칭시 인구는 일반적으로 3,100만명 수준이었으나 통계집계방법의 변화로 2005년부터 2,800만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음.
- 19) 도농간 소득격차 2000년 2.79:1 → 2008년 3.31:1(中國大陸城鎮人口6億...www.cdnews.com.tw 2009.6.15)

중국의 행정구역 편제(2008년 말 기준)

G성급(省級) :	34 (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 (직할시, 자치구)
G지급(地級) :	333
- 지급시	283
- 기타	50 (주로 자치구산하의 地區, 自治州, 盟)
G현급(縣級) :	2,859
- 현급시	368
- 시직할구	856 (지급시의 직할구 등)
- 현	1,463
- 자치현	117
- 기타	55 (旗, 自治旗, 特區 및 林區)
G향진급(鄉鎮級) :	40,828
- 街道辦事處	6,524
- 진(鎮)	19,234
- 향(鄉)	15,067
G촌민, 주민위원회 :	687,698
- 촌민위원회	604,285
- 주민위원회	83,413

*자료원 : 중국통계적요 2009, 중국지식지도책(산둥지도출판사)

3. 도시화의 추진 방식

중국이 도시화를 진행하는 방식은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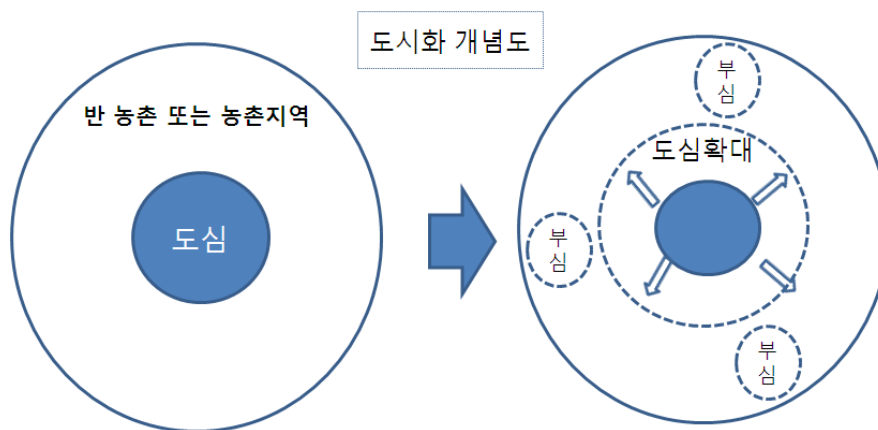
- ▶ 新도시의 건설 : 경제특구, 신구, 첨단신기술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 ▶ 기존 도시의 지속 확장 : 도시외곽 농촌지역 부분의 도시화
- ▶ 도시간 경제통합(벨트화)을 통한 규모화
- ▶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도시의 내부역량 확대
- ▶ 현성(縣城)의 확대

, 新

개혁개방이래 중국이 추진해왔던 점-선-면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경제특구, 경제개발구(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 등으로 구분)들이 지정되어 개발되었으며, 그 지역들이 신도시화되었음. 대표적인 사례가 선전 경제특구, 포둥신구 등이며 현재 중앙정부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텐진의 빈하이(濱海)신구 역시 이러한 예임.

,

‘도시화’라는 말을 들으면 생짜배기 농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중국의 ‘도시화’전략은 아래 개념도와 같이 도시 내 농촌 지역을 1)도심의 확대와 2)몇몇 농촌 소도시를 부도심화하여 도시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예를 들면 베이징의 경우 수년 전만해도 시내 순환도로인 3환선 안쪽만이 도시처럼 여겨졌으나, 수년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4환선, 5환선을 건설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펴면서 도심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음. 대부분의 중요 도시들이 이러한 발전모델을 따르고 있음. 그런가하면 베이징 도심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농촌의 때를 벗고 부도심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

중국의 도시군들이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상황이 점점 늘고 있으며, 대도시와 대도시간의 경제권역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음. 말 그대로 점을 개발하여 선으로 잇고 이를 면으로 확대한다는 점-선-면 전략이 실행되고 있는 것임. 도시군들이 연결되어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장강델타 : 상하이(上海) + 쑤저우(蘇州) + 우시(無錫) + 난징(南京)
- 주강델타 : 광저우(廣州) + 동관(東莞) + 선전(深圳) + 홍콩
- 발해만 : 베이징(北京) + 톈진(天津) + 탕산(唐山) + 친황따오(秦皇島)
- 영파만지역 : 자싱(嘉興) + 항저우(杭州) + 샤오싱(紹興) + 닝보(寧波)
- 서부내륙 : 청두(成都) + 더양(德陽) + 멘양(綿陽) [+ 러산(樂山)]
청두(成都) + 충칭(重慶) (成渝經濟圈)

,

중국의 도시들은 여러 가지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정책적, 지역적, 전통적 특성에 따라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도시화를 더욱 확대해 가는 상황임. 철강으로 유명한 판즈화(攀枝華)같은 도시는 정책적으로 만든 도시이며, 오토바이 생산은 충칭과 몇몇 도시, 직물은 샤오싱과 인근 도시, 전자부품은 동관과 인근지역과 같은 형태로 산업발전 단계와 지역정책에 따라 산업도시군이 형성되고 있음.

, &縣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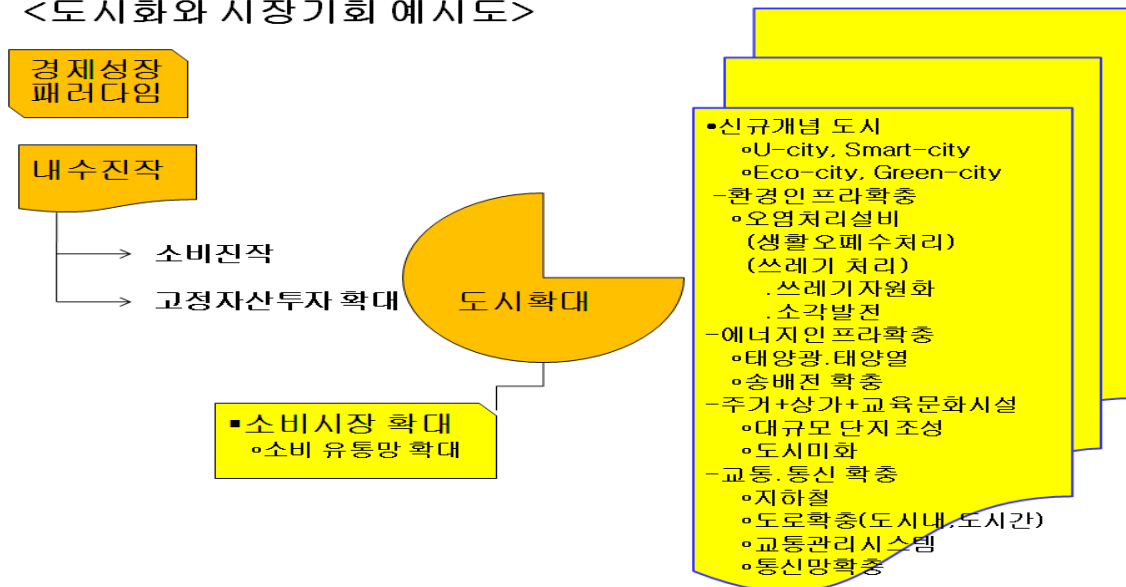
농촌인구의 대도시 유입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縣) 중심지(현성)의 확대와 지방 중소도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언명하고 있음. 현성의 확대는 2010년은 물론 12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기간(2011~2015) 중에도 지속 추진 될 것으로 보임. 현재 규모는 작지만 현성을 중심으로 많은 시장기회가 창출되고 있음. 예를들면 일 처리량 5만톤 규모의 생활오수처리장 등의 건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쓰레기의 자원화, 에너지화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음.

II. 도시화와 시장기회

1. 시장기회

중국의 도시화 전략 추진으로 우선 중대 도시들의 소비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도로, 통신망, 지하철 등 인프라 구축과 학교, 아파트, 상가 건설 등 건축분야, 생활오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기회가 생겨나고 있음.

<도시화와 시장기회 예시도>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화를 통해 인구는 물론 인프라인 건축, 주택, 도로 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 컴퓨터 등 중고급 소비재 역시 빠른 소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5〉 도시 팽창과 소비

구분	2000	2007
도시인구	4.6억명 (전체인구중 36%)	5.9억명 (45%)
도심건축면적	2.24만km ²	3.55만km ²
도시보유주택면적	44.1억m ²	119억m ²
도시 일인당 도로점유면적	6.1m ²	11.4m ²

도시가정 백가구당 보유	2000	2008
자동차(대)	0.6 ('01)	6.1 (2007)
컬러TV(세트)	116.6	132.9 (소비포화)
컴퓨터(대)	9.7	59.3

자료원 : 중국경제참고보(中國爲什麼有信心) 2009.2.13 , 2009중국통계적요

2. 소비

중국은 2008년 일인당 GDP 22,698위엔(\$3,268)으로 3,000달러 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점화'시대에 진입하였음. 대도시들은 이미 10,000달러 시대에 들어섰으며, 2,3선 도시들 역시 4,000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 중고급 소비재의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음. 중국의 도시들은 이제 진정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도시화 정책은 이러한 추세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음.

〈표5〉 중국 주요 도시의 소득 및 소비 현황

2008년	GDP (억원)	1인당GDP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억원)
		元	달러	2008년
베이징	10,488	63,029	9,075	4,589
상하이	13,698	73,124	10,529	4,537
광저우	8,216	81,233	11,696	3,140
톈진	6,354	41,840	6,024	2,000
우한	3,960	32,656	4,702	1,850
선양	3,861	43,499	7,127	1,500
난징	3,775	53,638	7,723	1,852
다롄	3,858	51,624	7,433	1,183
항저우	4,781	70,863	10,203	1,558
하얼빈	2,868	29,012	4,177	1,264
징저우	3,004	40,617	5,848	1,206
난창	1,660	30,464	4,386	529
허페이	1,665	34,482	4,965	528(추정치)
난닝	1,316	15,685	2,258	632
스좌장	2,838	25,144	3,620	1,005
창샤	3,001	45,765	6,589	1,274
우루무치	1,020	n.a.		419

자료원 : 중국통계적요2009, 중국통계년감, 각 도시통계년감

주) 항저우 1인당 GDP(2008)를 상주인구(797만명)로 계산할 경우 미\$ 8,699이며, 호적인구(戶口人口 678만명)로 계산할 경우 미\$ 10,199임

3. 프로젝트(도시인프라)

도시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건설 방향에 맞으면서 우리의 강점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시장기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임.

진출 노력이 필요한 중점 분야로는 1) 생태도시(Eco-city또는 Green City), U-city등 신규 개념도시 건설, 2) 도시확대에 따른 오폐수처리장 건설, 쓰레기 처리장(소각발전, 자원화, 에너지화) 건설, 3) 교통시스템 구축(ITS,지하철 등) 등이 있음.

□ U-city

도시화와 관련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유비쿼터스 도시(U-City)건설임. 중국에서는 무선성시(無線城市)²⁰⁾로 표현되는 U-city는 주로 IT기반의 첨단 도시화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그 사업량은 방대할 것으로 보임.

현재 U-city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베이징, 톈진, 칭다오, 우한, 상하이, 난징, 항저우, 광저우, 선전, 양저우, 청두 등임.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는 베이징 U-city를 들 수 있는데 베이징의 CBD상권, 금융가, 중관촌, 왕징경제기술 개발구, 이좡(亦庄) 등 100 km²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기업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에서는 자뎡(嘉定) 1기 공정(40km)이 추진되고 있음.

20) 무선성시(無線城市) : 공중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부가가치서비스, 지능교통시스템(ITS), 도로-시정-교통 통제시스템, 원거리의료, 구호활동, 공공안전 및 긴급통신, 디지털관광응용시스템, 무선인터넷 등을 갖춘 도시

□ Eco-city (Green-city)

우리나라의 그린시티²¹⁾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국은 에코시티(生態城市)라는 개념을 쓰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텐진의 빈하이 신구에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텐진 뿐만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도시들이 에코시티의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도시지역을 형성해 가고 있음.

Eco-city추진 프로젝트 사례

도시명	프로젝트명
베이징	에코아일랜드(生態島項目)
텐진	에코시티(中新天津生態城, 生態城市建設工程) 그린시티(綠色通道工程, 綠色城鎮及綠色村庄工程)
상하이	에코시티(生態城市規劃, 상하이 동탄에 추진)
스좌장(石家莊)	에코시티(石家莊生態市建設規劃, 2006~2020年)
지난(濟南)	에코파크(濟南市章丘生態樂園合作開發項目)
타이유엔(太原)	에코농업(太原市東西山生態農業區項目)
항저우(杭州)	에코파크(杭州生態園項目)
푸저우(福州)	에코파크(福州市生態園項目)
꾸이양(貴陽)	에코시티(生態城鎮建設項目(花溪湖潮鄉))
쿤밍(昆明)	에코시티(昆明市爭創國家生態市2009年工作計劃)
청두(成都)	에코밸리(成都生態谷項目)
란저우(蘭州)	에코개발구(蘭州城關綠色生態新區建設項目)
시닝(西寧)	에코파크(西寧城南生態園項目)
샤먼(廈門)	에코관광레저프로젝트(廈門某生態旅游休閒項目)

21) 한국의 생태환경 및 탄소 중립 도시 추진 방안 내용(사례)

- ▶ 풍부한 공원 녹지율·생태 면적을 확보(• 개발지역 52.3%를 공원·녹지·친수공간 조성 • 정부 청사 전체 옥상 연계·통합 옥상정원화 • 저밀도 주거지역 (1ha당 68명)화)
- ▶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수립(• 바람의 방향을 고려한 건물 배치로 대기순환 촉진 • 하천을 연계하고 물 순환체계를 정립해 열섬 현상 방지)
- ▶ 토목 및 건축공사 과정에서 탄소 발생 억제(• 사업별 탄소저감 목표 및 계획 수립 의무화 • 공공청사 등의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 • 에너지효율 우수 민간 건축물 : 용적률·분양가 인센티브)
-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태양열·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량 10% 보급 • 공공건축물 건축비용의 5%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투입 • 3000가구 규모의 태양광·태양열 시범단지 조성)
- ▶ 녹색교통체계 활성화(• 첨단 대중교통체계(자가용 이용률 30% 이내로 최소화) • 자전거 도로 386km 및 보관소 315개 설치 • 대중교통도로와 연계된 보행전용 녹지축 조성)

【사례】 텐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 저탄소 3예코시티 추진 내용

-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인 텐진 빈하이신구는 녹색경제, 저탄소경제 발전의 선두 시범의 역할을 함.
- 현재 빈하이신구 개발구, 항구의 두 곳의 생태공업원전설과 석유화학, 현대야금, 전기·물·소금 연합 생산, 자동차제조 4개 분야의 순환경제 산업 체 인건설을 가속화함.
- 또한 3개의 10만 톤급 이상의 해수담수화공장건설을가속화하고, 태양에너지, 석탄 가스, 지열 등 신에너지 개발 응용이 꾸준히 이뤄짐.
- 2007년, 텐진개발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프로젝트를 가동했으며, 구내의 기업은 절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합해 거래 신고하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음. 현재 텐진개발구에서 통합한 이산화탄소의 절감 배출량은 50만 톤을 초과하며 10달러/톤 가격대로 계산하면 연간 온실기체 절감배출량 수입이 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2008년 9월 중국 최초의 종합성배출권 거래기구(綜合性排放權交易機構)가 텐진에 설립됐음. 현재까지 텐진, 베이징, 허베이, 랴오닝, 산시(陝西), 광둥 등 지역에 36개 회원사가 있으며, 10개 회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국가 배출권 거래 종합시범방안 설계에 참여하고 에너지효율시장 설계와 국가 온실가스 관련 연구를 진행함.

□ 환경·교통 프로젝트

도시가 팽창하면서 상하수도처리, 전력공급,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등 많은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도심과 개발되는 부도심간의 연결 고속화도로, 도시 순환도로 추가 건설, 전력시설 확대, 도시와 도시간의 고속도로, 통신망 구축, 최첨단의 환경에너지 설비, 도로교통 통제시스템(ITS), 통신설비 등의 신규 시장이 생겨나고 있음.

이들 인프라의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보다 관리시스템이 상당히 뒤쳐져 있는 쓰레기 처리(자원화, 에너지화, 재활용 등),

교통시스템 분야 등이 진출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도시들에서는 쓰레기 소각발전소가 생소할 정도였음. 그러나, 이제는 주요 도시마다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회(省會)도시들은 평균적으로 일 수백톤(700~1,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한 곳당 300~500톤/일을 처리하는 쓰레기 소각발전 설립계획이 세워지고, 이를 공개 입찰에 붙이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도시가 크지 않을 때는 대부분 천연매립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 하였지만, 이제는 쓰레기소각처리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쓰레기의 자원화·에너지화(가연성 물질의 고체에너지화, 쓰레기 속의 광물질 재활용 등) 부분에 시



<텐진 소재 쓰레기소각발전소>

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쓰레기 소각발전소의 경우 향후 중국의 도시(지급시 기준 333개) 규모로 볼 때 적어도 300개 이상 건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준비 중인 것은 130여개에 불과해 향후 그 시장이 막대할 것으로 보임.

〈표6〉 중국의 쓰레기 소각발전소 현황

지역	운행 중(개)	2010년까지계획(개)		합계(개)	비중(%)
		건설 중	준비 중		
전국	50	25	57	132	100
동부	40	18	38	96	72
중부	5	2	7	14	11
동북	2	2	5	9	7
서남	3	2	4	9	7
서북	0	1	3	4	3

자료원 : 中國新能源網

주 : 2009년 현재 55개 소각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70여개 프로젝트가 진행중임.

소재지별는 72%가 동부지역에 집중돼 있음.

III. 진출방안

1. 개황

도시화가 가지고 오는 많은 시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중국시장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며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함.

○ 시장접근의 개념 전환 : 포괄적 접근 ⇒ 도시별 미시적 접근

우선, 그동안의 ‘중국시장’이란 포괄적 접근 방식에서 ‘경제권역별’²²⁾, ‘성(省)별’ 접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접근 즉 ‘도시별’ 특성을 감안한 접근 전략 구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기업의 마케팅은 물론 정부나 유관기관의 대중진출 기업지원 역시 ‘도시별’ 세밀도를 높여야 함.

○ 각 도시별 도시화 현황 조사 및 마케팅

- 1)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특대도시는 물론 성회(省會)²³⁾를 중심으로 한 2,3선 도시별로 ‘도시 발전계획’, ‘소비구조 및 시장특성’ 등의 변화를 파악(도시별 세밀한 시장조사)
- 2) 도시화로 파생되는 소비시장 확대(소득수준제고, 소비패턴변화, 신규시장 부상, 신규 마케팅 채널 및 수단 등장 등)와 ‘프로젝트’성 사업기회 발굴 (시장기회 발굴)
- 3) 시장진출 협력파트너(엔지니어링회사, 도소매상, 수입상 등)에 대한 정보 발굴 및 협력을 통한 현장 비즈니스 진행

22) 경제권역별 접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구분법의 몇 가지 사례는 아래와 같음.
 1) 중국정부의 개발 전략에 따른 구분 방식을 원용하여 서부지역(서부대개발 대상 12개성시, 자치구), 중부지역(중부굴기대상 6개성), 동북(동북진흥 대상 3개성), 동남부연해지역(10개성시)으로 구분,
 2) 기존의 지역구분법에 따른 화동, 화남, 화북, 화중, 동북, 서북, 서남지역으로 구분, 3) 경제력 집중도와 최근 지역간 경제집중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환발해만경제권, 장강델타경제권, 주강델타경제권, 동북경제권, 해협서안경제권, 황허경제권, 서삼각경제권, 북부만경제권 등으로 구분
 23) 중국의 성정부 소재지 도시. 우리나라의 도청소재지 도시와 비슷한 개념.

○ 융합 마케팅 전략

도시별 시장을 공략하려면 단발성적 접근으로는 시장진출 확대가 어려운바 물류-유통-금융-서비스(A/S센터, 비즈니스서비스, 생산(공정)컨설팅 서비스 등)가 융합된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 구사

○ 정부조달 및 프로젝트 시장 개발

도시화 추진으로 발생하는 지역별 프로젝트의 발굴은 물론 한국의 경험을 모델화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공동개발 및 발굴

2. 진출방안

○ 기본적인 시장개척 수단 활용 및 중점 분야 집중공략

기본적이지만 유력한 시장개척수단의 하나는 현지 개최되는 전문전이나 봄가을로 개최되는 광저우교역회(Canton Fair) 같은 대규모 전시회 참여 및 참관임.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전시회를 통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정부나 협회에서 조직하여 파견하는 시장개척단이나 업체별 제품로드쇼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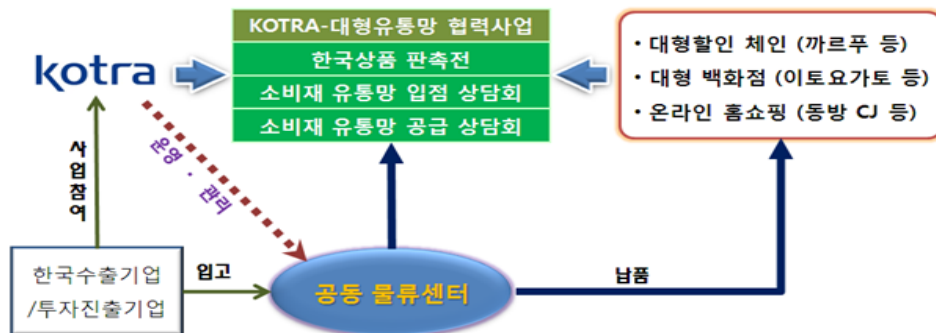
또한, 도시화와 소득수준제고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① 생계유지형 → 부유형, 생활향유형 ② 중산층의 확대로 고소비군 증가 ③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 증가)를 반영하여 웰빙, 레저, 의료위생, 문화상품, 교육, 테마파크 등 신규 중고급 소비시장에 대한 집중 공략이 필요함.

○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입

한국의 대중수출은 2008년기준 93.4%가 자본재 및 원부자재이며 소비재는 6.6%에 불과함. 급속히 커지고 있는 중국의 소비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통망 진입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중국내수시장 소비재 진입은 높은

물류비용과 거래처발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과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보가 무엇보다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예시)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입도



이와 관련 KOTRA등 수출유관기관이 추진하거나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²⁴⁾의 활용도 제고와 이를 거점으로 한 까르푸, 이토요카도, 중바이, 이마트, 롯데마트 등 현지 유통매장과의 연계를 통한 내수판촉활동, 유력 유통매장의 제품소싱 상담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통한 제품 판매, TV홈쇼핑 활용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함.²⁵⁾

○ 글로벌기업 및 중국 대기업 아웃소싱 시장 진입

중국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은 물론 수 천 개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의 주요 부품 아웃소싱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음. 기업의 브랜드이미지와 품질의 유지가 중요한 글로벌기업이나 중국의 대기업들은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해외 아웃소싱 내지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매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고급 IT전자부품이나 자동차부품 등은 최근 들어 아웃소싱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4) KOTRA에서는 단순물류창고의 개념이 아니라 물류와 유통을 연계시키고, 거래처 발굴 및 거래를 지원하는내수마케팅 기능을 갖춘 물류센터를 운영 중임. '09년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시안)는 준비중임.

25) KOTRA에서는 '09년 현지 유통점과 판촉전을 10여회, 온오프라인 유통망 초청 상담회, 온라인쇼핑몰 사업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공동물류센터기능 확대 및 이와 연계한 on-off라인 유통망 진입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비록 글로벌 기업들은 검품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납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면이 있지만, 중국시장의 최대 단점 중 하나인 대금결제의 불안정성 해소, 거래 지속성 제고, 거래규모의 확대 가능성, 제품 공동개발 연구 등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기업 아웃소싱시장은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였음.

우리기업으로서는 상하이, 베이징 등에 포진되어있는 글로벌기업 구매 본부는 물론 하이얼, 하이신, 띠이치차(第一汽車)같은 중국 대기업들과의 접촉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글로벌기업들의 아웃소싱 시장 진입은 부품의 수출은 물론 신규부품 공동개발, 핵심기술 상호공유, 현지시장 연계 마케팅, 중국표준화 작업 참여 등 보다 심화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²⁶⁾.

○ 2,3선 도시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²⁷⁾

두 자리수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미 5,6천달러 대의 소득수준에 진입한 중국 주요도시의 소비시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 필요(<표5>참조)

①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확대 : 온라인판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2, 3선 도시로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2,3선 도시 매장은 대도시에 비해 상품구성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② ‘그녀의 소비를 잡아라’ : 중국에서는 ‘그녀의 경제’(她經濟)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웰빙, 건강, 신용 소비와 재테크에 있어 젊은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판매전략 수립 시 이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메이저기업과의 정면대결 피하는 블루오션지역 공략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참신한 아이템으로 2,3선 도시 시장 선점의 이점을 누리는 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26) KOTRA에서는 '09년에 상하이 GM, 난징FORD, PSA등 완성차업체와의 부품구매 상담회, 광주교역회 참가를 통한 부품 상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음.

27) '중국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 포인트' 김명신, KOTRA '09.3월 참조

(사례) 정저우(鄭州) 더커스(중국제 프랜차이즈 요식체인)는 인구 15만명 이상, 일인당 평균소득 4,500위안 이상 지방도시와 인구 10만명 이상, 일인당 평균소득 6000위안이상 현금도시를 위주로 진출해 정저우 최대 요식체인으로 부상함.

④ 한류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중소도시위주 한국문화상품 진출

2,3선 도시의 경우 한류열기가 여전히 높은 지역이 많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문화상품 진출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에누리문화’고려해 할인행사를 마케팅에 활용

중국인들은 가격협상을 즐기는 편이며 전통적으로 상거래에 ‘에누리문화’가 발달해 있음. 할인쿠폰 등 각종 할인전략으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을 현지 마케팅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출 가능 분야로는 Eco-city, U-city등 신규 개념도시 프로젝트, ITS, 지하철 필요설비 등 교통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도시화에 따른 환경-에너지 융합 프로젝트가 꼽힐 수 있음.

○ 신규 개념 도시 프로젝트

우리나라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U-city분야는 발달된 IT기술과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Eco-city는 신규 도시 개발의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려 진입을 추진할 수 있음.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베이징, 선양 등의 U-city 프로젝트와 텐진 빈하이신구의 담수화 프로젝트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신규 개념 도시 구축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기 상태인바,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주요 도시별 프로젝트의 조사 및 발굴임. 이러한 시장조사 바탕 위에 발생하는 프로젝트 진입은 물론, 우리의 경험을 모델화하여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진입을 하여야 함.

한편, 우리나라의 제 3국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능형교통관리 시스템의 경우 중국시장 진출도 그 가능성이 큰 편임. 산업의 급속한 발전, 급속한 도시의 팽창 경험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중국 도시들의 교통관리시스템과 설비 부문에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큼. 또한 주요 도시별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및 전철 프로젝트 수요가 많은 상황임. 관련 프로젝트 자체²⁸⁾에 원청자로 참여는 어렵지만, 소요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관리 시스템 등의 설비 부문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 상황임.²⁹⁾

○ 환경-에너지 융합 프로젝트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더욱이 중국의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많은 환경-에너지 연관 프로젝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시장 진입 차원은 물론 한중간 협력, 기업 간 협력 차원에서도 환경-에너지 융합 분야에 대해 기업은 물론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한-중간 협력실천(진출)과 관련 아래와 같은 방안의 추진이 필요함.

- ▶ 환경관리+ 에너지창출 효과 가능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시범 프로젝트 시행
 - 폐기물재활용, 환경생태도시, 하수처리장 공동개발, 쓰레기소각발전, 환경 에너지 검측 관리시스템 등 환경관리(오염방지, 오염처리, 오염물발생 감소)+ 에너지화(에너지 재생)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프로젝트 공동 조사 발굴
 - 지역별 폐자원 에너지화 가능 프로젝트 정보 교환 및 시범프로젝트 시행 (BOT 방식, TURN KEY 방식 프로젝트)

28) “2009년 베이징국제도시 궤도교통전시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중국의 신규 건설 궤도교통노선은 모두 89개로 총길이 2,500km에, 9,937.3억위안을 투자함으로써 중국은 앞으로 세계 최대 도시궤도교통 건설시장이 될 전망이다. 1995~2008년간 궤도교통을 보유한 도시가 2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 투자는 매년 100여억 위안의 속도로 추진되었음. 현재까지 10개 도시에 31개 도시궤도 교통이 개통되었고 운영 총길이는 835.5km에 달함. 한편, 최근 국무원이 허가한 22개 도시의 전철건설 계획의 투자규모는 8,820억 위안에 달함. 또한 전국 50개 도시가 전철건설의 기준에 도달하여 향후 궤도교통건설 발전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음(‘09.12.9 인민일보 해외판)

29) ‘08, ‘09년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중국의 지하철에 특수 에스컬레이터를 입찰을 통해 제공한 바 있음.

- 양국간 프로젝트 수행 협력 가능업체(설계, 기술, 공정, 자금 등 분야) 정보 교환 및 협력 상담(주선 및 지원)
- ▶ 폐자원 에너지화 가능항목 공동개발
 - 사용종료 매립지 재개발, 오폐수처리장 슬러지(오니) 등 폐기물 자원 에너지화 가능성 조사
 - 폐기물 분리 및 에너지 자원화(RDF³⁰⁾, RPF 등) 공동 협력
- ▶ 한중 환경-에너지화 정기포럼 상호 개최
 - 상호교환 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속
 - 환경관리+재생에너지화 모범 사례(경험) 소개 및 전파
 - 관련 기술 개발 현황 정보 상호 교환 (DB화)
- ▶ 관련 기술 인증 상호 인정
- ▶ 관련 라벨 인증 상호 인정
- ▶ 관련 전시회 참가 및 양국 업체간 상담 지원

보다 구체적인 한-중간 프로젝트 협력진출 가능 분야로

- 환경오염감소와 자원재생, 에너지화가 가장 용이하고 효과적이며
- 한-중 양국간 협력이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보일 수 있고
- 한-중 양국의 산업구조·발전 단계에 따라 가장 협력이 시급하며
- 오염물 발생이 가장 많은 분야이면서 에너지화가 용이한 분야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다음 분야가 유력한 것으로 보임.

- ▶ 폐기물 재생 에너지 : CO₂저감, 매립쓰레기 감소, 에너지대체효과-
 - 1)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 RDF, RPF 및 폐타이어 재생 및 에너지화
 - 2)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30) RDF (Refuse Derived Fuel) : 가연성 쓰레기를 추출하여 고형화한 연료. RPF (Refuse Plastic Fuel)

- 음식물쓰레기(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여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 등으로 활용
- 폐기되는 어류 가공 부산물 전량 에너지화
-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및 통합형 바이오가스 발전

3) 폐가스: 매립지 및 공장의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가스 활용

4) 폐열 재생에너지

- CO2저감효과, 에너지 효율제고, 에너지 재활용
- 폐열회수 시스템
- 매립장과 소각시설에서 메탄가스(CH4) 및 소각여열을 회수, 열병합 발전. 지역난방에 공급하고 자동차 연료화도 추진

▶ 하수처리장 공동 개발 :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

- 현(縣)마다 하수처리장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최근 농촌의 중소도시 규모 확대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에 초점을 맞추어 하수처리장 건립 및 에너지 자립화 프로젝트 발굴

* 하수처리장은 시설 및 부지 특성상 1)슬러지 소화발전, 2)풍력, 3)태양광 및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쓰레기 소각 발전

▶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지 개발

▶ 환경에너지 검측. 관리시스템 공동개발 /끝/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09-004	美 경기부양법인 분석 및 활용전략	2009.2
09-005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2009.3
09-006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2009.4
09-007	2009 美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09.4
09-008	미·중·일 그린뉴딜 정책	2009.4
09-009	금융위기속 CIS 진출 기업 및 바이어 동향	2009.4
09-010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아프리카 - 중국, 일본, 인도의 진출현황 및 시사점 -	2009.4
09-011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현지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2009.5
09-012	인도 신정부의 경제통상방향과 전망	2009.6
09-01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동향	2009.8
09-014	미 행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와 미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2009.9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09-002	중동의 5대 비즈니스 유망 분야	2009.2
09-003	한-호주, 뉴질랜드 BT산업 협력방안	2009.3
09-004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	2009.3
09-005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를 읽어라	2009.3
09-006	일본 소비재 유망상품 및 수출방안	2009.3
09-007	새롭게 주목받는 美 흑인시장	2009.3
09-008	아프리카 전력시장 ON - 전력산업 현황과 진출 방안	2009.3
09-009	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 포인트	2009.3
09-010	세계 전자산업 및 시장의 재편과 우리기업에의 기회	2009.4
09-011	동남아 CDM 시장현황과 기회	2009.4
09-012	중동에 펼쳐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 그린산업현황과 기회	2009.4
09-013	해외 LED 5大 시장 진출전략	2009.5
09-014	인도 소매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9.5
09-015	미국의 쿠바 제재조치 완화와 한-쿠바 교역	2009.5
09-016	아세안 휩쓰는 '경제한류'	2009.5
09-017	자동차 부품의 틈새시장, 중동·북아프리카를 가다	2009.5
09-018	미국 新성장 전자부품 시장동향	2009.5
09-019	세계시장을 누비는 한국의 강소제품들	2009.7
09-020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인터넷 홍보 핵심 포인트	2009.7
09-021	중남미 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	2009.7
09-022	동남아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따른 한국기업 참여 기회	2009.7
09-023	한국 제품의 중국내 브랜드 인지도 이렇게 높아라	2009.7
09-023	한국 제품의 중국내 브랜드 인지도 이렇게 높아라	2009.7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24	자동차 부품의 틈새시장, CIS를 가다	2009.7
09-025	중동은 이런 의료기기를 원한다	2009.7
09-026	글로벌기업을 누른 신흥시장 토종기업의 성공 전략	2009.7
09-027	한-EU FTA 수출유망품목 및 활용방안	2009.7
09-028	한-인도 CEPA 이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9.8
09-029	해외 주요국 자전거 산업정책 및 시장동향	2009.8
09-030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 한중일 수출품목 경쟁 동향	2009.8
09-031	동남아 전력 기자재 시장현황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09.8
09-032	심층분석, 러시아의 인증제도 -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도와 향후 전망	2009.9
09-033	2009 중국 Grand Survey - 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평가 및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2009.9
09-034	홍콩 문화시장, 제대로 알고 들어가자 - 게임, 캐릭터, 라이선싱 -	2009.9
09-035	中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	2009.9
09-036	인도 소비재 시장동향 - 11억 인도시장, 이런상품 잘 팔린다	2009.9
09-037	글로벌 경제위기 1년, 중동지역 소비시장 최신 트렌드	2009.9
09-038	금융위기 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 변화	2009.10
09-039	한미 FTA에 대한 미 업계 의견 분석	2009.10
09-040	中 · 臺灣 경제협력 체제협정(ECFA) 어떻게 진행되나	2009.10
09-041	2009년 4분기 KOTRA-SERI 수출종합지수	2009.10
09-042	동남아 이터닝 시장현황과 진출 전략	2009.10
09-043	2009 베트남 Grand Survey	2009.10
09-044	2009 인도네시아 Grand Survey	2009.10
09-045	브라질 월드컵/올림픽 특수 활용전략	2009.11
09-046	홍콩 문화상품시장, 제대로 알고 들어가자 II - 방송콘텐츠, 영화, 음악 -	2009.11
09-047	러시아 CIS 유통망을 뚫어라(러시아, CIS 대형 유통망 시장 현황 분석)	2009.12
09-048	CDM과 ESCO로 본 중국시장	2009.12

●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글로벌 수출시장의 5대 트렌드	2009.1
09-002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2009.2
09-003	동유럽 금융위기와 진출기업 동향	2009.3
09-004	경기침체기 글로벌 기업의 구매정책 변화	2009.3
09-005	세계 유명기업의 그린마케팅	2009.3
09-006	원화약세에 따른 대중수출 영향 및 전망	2009.3
09-007	중동 건설 ·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동향 및 시사점	2009.4
09-008	美 크라이슬러 파산보호신청과 국내업체 영향	2009.5
09-009	해외시장에서의 한일 수출품목 경쟁동향	2009.5
09-010	동유럽 금융위기 이후 현지시장 점검	2009.6
09-011	미 GM 파산보호신청과 국내업체영향	2009.6
09-012	영국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점검	2009.6
09-013	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녹색기술	2009.6
09-014	‘Buy China’ 지침의 배경과 영향	2009.6
09-015	중국 내수소비 뜨는 제품 - 화장품, 침구용품,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벽지, 도료, 식품포장기계 -	2009.6
09-016	한-EU FTA 10大 수출유망품목	2009.7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17	온두라스 쿠데타와 우리 수출 및 현지진출 기업	2009.7
09-018	2009년 타겟시장, 3중시장 현황과 전망	2009.7
09-019	중국 부동산 시장 어디로?	2009.8
09-020	일본 총선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2009.8
09-021	세수(稅收)로 보는 중국경제	2009.9
09-022	최근의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2009.9
09-023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녹색제품	2009.9
09-024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2009.10
09-025	금융위기 1년, 미국 바이어 구매패턴 변화 설문조사 분석	2009.10
09-026	EU 통합 동향 및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2009.10
09-027	미-중 통상분쟁과 국내 수출업체 영향 전망	2009.11
09-028	주요국 탄소세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09.11
09-029	2010 차이나 퍼즐 : 경제전망과 거시정책	2009.11
09-030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0년 수출전망	2009.11
09-031	두바이 쇼크,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09.11
09-032	2009년 세계시장을 빛낸 한국의 월드베스트 제품들	2009.12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저보트산업 조사	2009.1
09-004	2009년 지역별 수출유망상품	2009.2
09-005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2009.2
09-006	2009 외국인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	2009.3
09-007	러시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2009.3
09-008	CEO・HR マネージャー向けの主要労働判例集 (2008年改訂版)	2009.3
09-009	중국 내수유통 경영실무 가이드	2009.4
09-010	그린허브코리아 주간 2009 종합결과보고서	2009.5
09-011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유럽편	2009.5
09-012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미주편	2009.5
09-013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아시아편	2009.5
09-014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09.5
09-015	해외 주요국 LED 시장동향	2009.5
09-016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09.6
09-017	법령으로보는 중국 노무관리실무가이드	2009.6
09-018	200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8)	2009.6
09-019	200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09.6
09-020	200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9.6
09-021	Post-China 투자진출 유망국 투자여건	2009.7
09-022	주요 선진국 녹색에너지 기술동향	2009.7
09-023	전세계 비철금속 생산현황 및 글로벌소싱 활성화 방안	2009.7
09-024	중국 주요 시장 프랜차이즈산업 상권 분석 및 진출방안	2009.8
09-025	한눈에 들어오는 중국 유통지도 2010	2009.9
09-026	유럽 온라인 유통점 진출 가이드	2009.8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27	협력유망 유럽 신재생에너지 기업정보	2009.8
09-028	짜통의 진화, 중국 산짜이(山寨)	2009.9
09-029	중국 산짜이 문화의 지재권에 대한 영향	2009.9
09-030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09.10
09-031	2008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09.10
09-032	CIS 지역 자원개발 진출 가이드	2009.9
09-033	일본사람들은 왜 물건을 잘 만들까 - 모노즈쿠리 명가의 비법 해부	2009.11
09-034	2009 해외전시회 현장스케치	2009.11
09-035	필리핀 CDM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 가이드	2009.10
09-036	ADB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10
09-037	중동부 유럽 EU기금 프로젝트 진출방안	2009.10
09-038	중동미래성장산업 진출 가이드	2009.11
09-039	200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2009.12
09-040	2009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2009.12
09-041	중남미 의약품 시장동향	2009.11
09-042	인도투자실무가이드(개정판)	2009.12
09-043	해외투자 현장 상담 사례집	2009.12
09-044	2010 CIS 히트 예감상품	2009.12
09-045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9.12
09-046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영문)	2009.12
09-047	일본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9.12
09-048	2010 블루슈머, 미래를 지배할 12가지 골든마켓	2009.12
09-049	2009 기후변화대응 개도국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2009.12
09-050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	2009.12
09-051	외국인 부동산 취득 안내	2009.12
09-052	GUIDE TO FOREIGNER'S LAND ACQUISITION IN KOREA	2009.12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	2009.2
09-007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9.2
09-008	미-중-일 그린 비즈니스를 잡아라	2009.4
09-009	일본기업 부품소재 구매전략 설명회	2009.4
09-010	중국 내수시장을 제대로 뚫기 위한 성공조건과 공략방법	2009.4
09-011	중국 부품소재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2009.6
09-012	미국 자동차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2009.6
09-013	유럽 자동차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아시아 주요 완성차 구매전략	2009.6
09-014	CIS 주요국 시장변화와 진출전략	2009.6
09-015	중국 내수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노무·세무 핵심 포인트	2009.6
09-016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설명회	2009.6
09-017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사업기회	2009.6
09-018	중동 신성장산업 진출 설명회	2009.6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19	손에 잡히는 중국 공공프로젝트 설명회	2009.9
09-020	FTA 기회시장을 잡아라	2009.9
09-021	중국 내수유통, 이런 품목 이렇게 뚫어라	2009.10
09-022	제4회 국제자원협력포럼 2009	2009.9
09-023	2009 세계지식포럼 '아시아 투자기회와 신프로젝트' (Investment Opportunities in Asia)	2009.10
09-024	제 1회 KOTRA 카본 포럼	2009.10
09-025	환경플랜트 프로젝트 플라자	2009.10
09-026	중동 미래성장산업 진출 설명회	2009.11
09-027	중국 진출단계별 지식재산포인트 설명회	2009.11
09-028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자료집	2009.11
09-029	중국경제진단 2010 설명회	2009.11
09-030	2010 세계 거대 기회시장 (EU, 중국) 공략 설명회	2009.11
09-031	베트남 건설·유통산업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2009.12
09-032	EU·중남미 의약품 시장 진출 설명회	2009.11
09-033	Post-Crisis, CIS 유통망 진출 설명회 - CIS 유통시장, 이렇게 뚫어라 -	2009.12
09-034	일본 유통시장 진출 설명회	2009.12
09-035	2010년 미국 섬유시장 진출 설명회	2009.12

작성자

◆ KOTRA 중국사업단 곽복선 부장

Global Business Report 09-049

中, 도시화를 알면 시장이 보인다

발 행 인 ㅣ 조 환 익
발 행 처 ㅣ KOTRA
발 행 일 ㅣ 2009년 12월
주 소 ㅣ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ㅣ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ㅣ www.kotra.or.kr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